



계양전지회 故선승규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그대와 함께 22년 일귀온 노동조합 소중하게 지키며, 유가족과 계양조합원의 아픈 마음 기댈 수 있는 지부가 되겠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故김용균 님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런 아픔 없도록 하겠다는 부모님의 다짐에, 경기지부 늘 그랬듯 묵묵한 뒷배가 됩시다.

모두가 뒷배였습니다

2018년을 보내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년 늦은 10기, 공백기를 안정적으로 지나 새 지도부가 빨리 자리 잡도록 했던 굳건한 힘이 자력현장이고 뒷배지부였습니다.



▲ 정구양 경기지부 지부장과 권오정 사용자대표

12.20(목) 2018년 지부 집단교섭 조인식을 마치고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사업장 보충교섭 미타결로 매년 해를 넘겼던 예전에 비해 올 해는 연내에 조인식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썬텍, 삼화지회가 올 해 처음 집단교섭에 합류했고 썬텍지회는 회사의 단협무효 소송 탄압을 이겨냈습니다. 물론 새식구들이 집단교섭의 형식적 구성원을 넘어서려면 할 일이 많습니다.

지속되는 경영위기와 노조탄압을 이겨내고 노사 모두의 살길을 찾고자 하는 썬텍 조합원의 마음을 소중하게 살필

때입니다. 공장 이전과 복잡한 경영상황에도 잘 버텨온 주연테크지회, 파산까지 갔던 극한상황에도 함께 삶을 지키기 위해 긴 시간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고 또 다른 길을 걸어가는 두원정공지회 모두가 바로 뒷배지부입니다.

집단교섭에서 '임금체계 일방개편.저하불가'에 다시 한번 합의했지만, 대각선 사업장이 대폭 늘었고 최저임금-노동시간 등 쟁점이 계속 불붙고 있기에 더욱 긴장하고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사업장에 대한 자본의 도발과 구조조정에 함께 맞서고 함께 해결하는 집단교섭의 정신, 뒷배지부의 힘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내년 집단교섭에는 올해 설립된 한국와이퍼분회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지부 투쟁의 구심이자 전체 사업장의 뒷배로서 집단교섭의 나아갈 바를 새해에는 더욱 구체적인 과제로 만들어갑시다.

첫 해 사업평가가 한참인 요즘, “올 해 우리 집에서 가장 핫했던 단어”로 간부들은 “어디야? 뭐해? 언제와? 집에 안 오니? 얼굴 좀 보자. 또 나가?” 같은 말을 압도적으로 많이 꼽았습니다. 그래요, 정말 다들 많이 노력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함께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갑시다.

2019 자력현장 뒷배지부 기초 탄탄 · 디테일 집중

올 해도 새식구가 참 많이 늘었습니다. 예년에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던 현판식을 올 해는 10월부터 지금까지 벌써 5번이나 했습니다. (오른쪽 사진) 11.24에는 신생 대주정공지회가 화성에 생겨 오늘까지 3차 교섭입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지부 미조직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격주로 모여 노동조합의 기초, 노조설립 지원방안을 현장의 간부들이 직접 배우고 토론하고 실습하고 있습니다. 조직.미조직은 각각의 일이 아니고, 조직강화와 조직확대가 함께 갈 때 진정한 확산-뒷배지부가 이뤄진다는 것을 지난 10년 간 배웠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신생사업장, 신생조합원, 첫 간부. 어느 때보다 자력현장 기초 강화와 선후배 공감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 왼쪽 위부터 10.29 현대위아비정규평택지회, 11.7 한국와이퍼분회, 11.26 유진분회, 12.3 현대모비스평택지회, 12.10 현대위아안산지회 현판식 한 장면

2019년 다시 기초를 다지며 자력현장.뒷배지부의 구체적인 실천을 발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의 가능성을 함께 열어갑시다.

대한솔루션 9년의 드라마

포승공단의 대한솔루션지회가 교섭권을 빼앗긴 9년의 소수노조 시절을 끝냈습니다. 12.21(금) 다수노조였던 기업노조가 총회를 거쳐 해산했습니다. 2006년 5월 금속노조가 생긴 후, 2010년 2월 기업노조가 생겨 교섭권을 가져간 지 거의 9년 만의 일입니다.

12.16(일) 대한솔루션 인천, 광주, 경산공장에서 노조 설립총회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소수노조가 된 후 임금차별과 승진차별 등을 겪으며, 매일 출근하는 회사에서 이 노조 저 노조로 갈라져 갈등을 마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회는 조직사업에 최선을 다했고, 관계의 상처를 보듬어가며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뒤집힐 듯 뒤집힐 듯, 좀처럼 바뀌지 않는 현실에 굴하지 않고 9년을 왔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습니다.

최근 3년 전국 공장 초동주체들을 만나 노조설립을 준비



했고 최근 현실화되자 포승공장의 물길도 확 바뀌었습니다. 올 해 기업노조의 교섭에 대해 ‘상여금 일부 기본급화와 토요일 무급화를 저지하는 투쟁, 강제 순환배치를 원상 회복하는 투쟁’ 등 현장투쟁을 이어온 것도 특특히 한몫했습니다. 포승과 인천, 광주, 경산, 당진 400여 조합원이 함께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포승은 기업노조가 이미 교섭대표자격을 확보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나왔지만, 기업노조가 결국 해산하고 지회 조합원이 100%를 향하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그냥,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죠” 지회 간부의 담담한 한 마디에 수백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력현장의 빛나는 스토리로 새로 쓸 9년의 드라마입니다.

자력·뒷배 무엇 “인지/” 보여줘!

12.21(금) 아침 9시 인지컨트롤스안산지회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참석한 전조합원에게 비타500이 하나씩 전달됐습니다. 지회 회계감사님이 한 해 고생 많았다고 사비를 털어 준비해주셨죠. 지난 1년 투쟁을 담은 동영상으로 체육대회, 지부파업과 인지 앞 1500명, 193일 출근투쟁을 돌아봤습니다. 다 같이 빵 터지기도 하고, 눈물도 났습니다.

이재송 지회장은 “조합원 한 분 한 분 흔들림 없이 왔다. 올해 정말 잘 싸웠다. 장시간 투쟁으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고 내년에도 힘차게 투쟁하자” 했습니다.

지회는 매년 연말 하루 주야간 전체시간을 비워 전조합원이 모이는 송년회를 합니다. 정구양 지부장은 “송년회 이렇게 하는 곳 처음 봤다. 역시 인지다.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올 해 투쟁 최고의 성과다. 당당하게 이어가자. 지부도 함께 하겠다”고 격려했습니다. 우수 구역으로 상을 받은 대의원들이 “함께 투쟁했는데 우리만 받아도 되나. 전조합원이 함께 의미 나누자”고 하자 누군가 “상금도 나누자”했고, 대의원들은 답을 피했다는 후문입니다^^)

올해 정년퇴직인 조명식 조합원에게 공로패와 선물을 드렸습니다. 선물은 전조합원 마음을 모아 마련했습니다. 조명식 조합원은 “끝까지 가면 반드시 이길 거라 믿는다. 꼭

승리하길 바란다”고 후배동료들을 응원했습니다.

고생한 대의원들과 상집간부들의 한 마디를 들었습니다. 간부들은 모두 조합원에게 감사했습니다.(고생한 나에게 박수를 외친 대의원도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처음엔 ‘될까?’ 했지만 서로가 있어 여기까지 왔다. 지치지 말고 함께 가자.”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2009년 노조설립과 직장폐쇄 투쟁 이후 가장 긴 시간 투쟁을 이어오는 인지 조합원들의 담담하고 밝고 당당한 모습이 멋집니다.

2018년 지부 소식지 기사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 1위가 바로 ‘인지투쟁’이었습니다. 이런 뒷배지부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12.28(금) 7시 20분** 올 해의 마지막 출근투쟁에 맞춰 안산권 등 지부 많은 간부들이 **“인지조합원 힘내라! 끝까지 함께하자!”** 송년맞이 연대행사를 엽니다. 깜짝선물도 준비되어 있다는군요. 연말을 맞아 아낌없이 보여주세요. 서로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